【P4-28】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한국인의 경제수준별 음식 섭취 현황

문현경, 김유진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9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고있으나, 권장량의 75% 미만 또는 125%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20.5%나 되며, 특히, 식생활 환경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칼슘과 비타민 A의 섭취량은 영양권장량의 75%미만으로 섭취하는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될수록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식품의 경우는 곡류 및 그 제품 , 채소류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반면, 육류 및 그제품, 어패류, 유류의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인 실제 섭취하는 음식군별에 따른 분석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중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 섭취 및 식생활 조사에 참여한 10,400명이 섭취한 음식군별로 경제수준에 따라 상용음식의 섭취량을 분석하여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경제수준에 따른 한국 국민의 영양소 섭취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제수준은 1998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빈곤선을 이용하여, 상(각 기준의 두배이상의 수입), 중(빈곤선 이상과 각 기준의 두배미만의 수입), 하(가족수에 따라 빈곤선 이하의 수입) 세그룹으로, 음식군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된 음식군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고, 모든 음식의 섭취량은 1인1일당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8.2를 사용하였고, 그룹간 음식군별 섭취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위하여 ANOVA-test($p<0.05$)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수준그룹간 각 음식군별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음식군은 밥류($p<0.01$), 빵 및 과자류($p<0.0001$), 면 및 만두류($p<0.0001$), 국 및 탕류($p<0.01$), 찜류 ($p<0.0001$), 구이류($p<0.0001$), 전, 적 및 부침류($p<0.01$), 볶음류($p<0.0001$), 조림류($p<0.05$), 튀김류($p<0.0001$), 나물류($p<0.0001$), 장아찌류($p<0.01$), 우유 및 유제품류($p<0.0001$), 음료 및 차류($p<0.0001$), 과일류($p<0.0001$)였다. 음식군별 섭취량의 경제수준 그룹간 순위는 밥류, 죽 및 스프류, 김치류는 하, 중, 상의 순으로, 빵 및 과자류, 면 및 만두류, 찜류, 구이류, 볶음류, 조림류, 튀김류, 나물류, 장 및 양념류, 우유 및 유제품류 음료 및 차류, 과일류, 조리하지 않는 음식류, 기타류는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 및 탕류는 하, 상, 중의 순으로, 전, 적 및 부침류, 젓갈류, 장아찌류는 중, 상, 하의 순으로, 주류는 상, 하, 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하'그룹은 식사시 주음식인 밥류, 죽 및 스프류, 국 및 탕류, 김치류 위주로 영양소 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음식의 섭취가 요구된다. 경제수준 '상'그룹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다양하며 밥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식군에서 섭취량이 많아 영양과잉이 문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수준이 다른 그룹은 영양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섭취하는 식품과 식품을 섭취하는 음식도 다르게 나타나 각 그룹군별로 영양문제와 이를 일으키는 식품 및 음식 섭취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